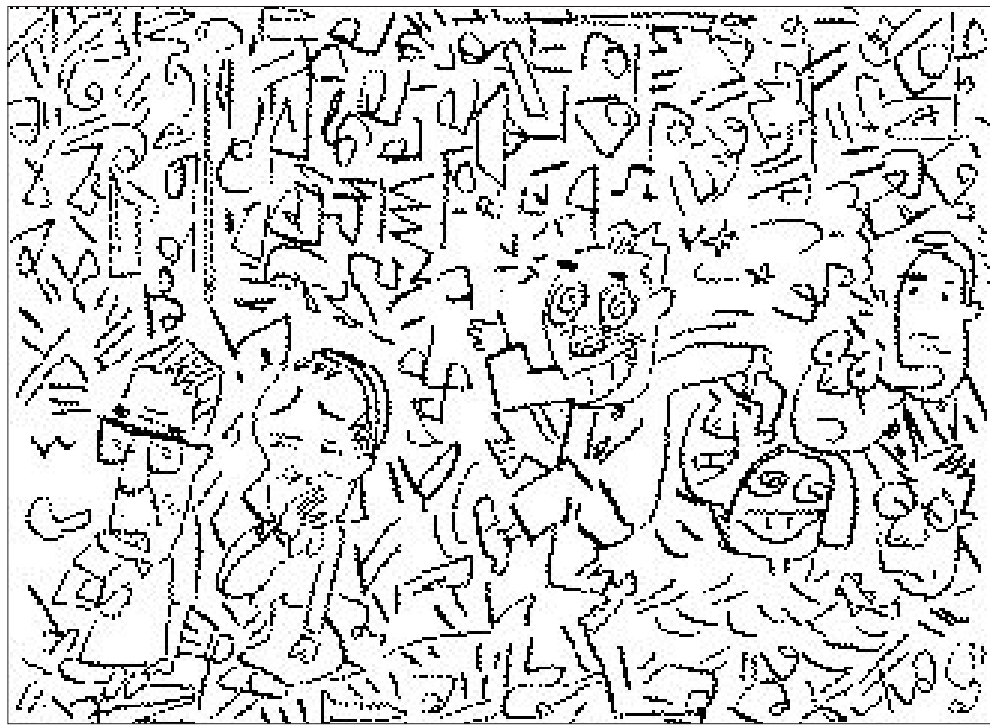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82 >



찾아보세요 펜촉, 바늘, 열대어, 셔플록, 고추, 송사리, 종이배, 뭇, 사람 옆 얼굴

왜 항상 취해서 오니?

훈가 자난 딸을 둔 부모가 있었다. 딸이 못생겨서 흑시나 배필을 만나지 못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남자 친구를 가끔 집으로 데리고 와 호트했다.

그런데 아빠가 궁금한 게 있어 딸에게 물었다. "애야,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올 때마다 취해 있니?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니?"

그러자 딸이 하는 말, "에이, 아빠는 술 안 취하면 나 좋아하는 남자가 있겠어요?"



지난주 정답

송사리, 양주잔, 우산, 열대어, 고추, 갈매기, 접시, 뿔이, A자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지정숙(완도군 완도읍) 정하나 (광주시 동구 동명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쿵후 전설' 이소룡, 의문의 사망

70~8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남학생들치고 한 번쯤 이 사람 흉내를 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벽에다 그의 사진을 붙이고 그를 닮겠다며 무술 도장을 찾아 '아보~'하며 이상한 기합 소리를 질러대던 남학생들도 많다.

죽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지껏 무술 영웅으로 남아 있는 인물.

중국어 발음으로는 리샤오룽, 영어식 이름은 브루스 리. 우리에게 '이소룡'이라는 이름이 친숙하다.

'당산대형' '맹룡과강' '정무문' '사망유희' 등 그가 출연한 대표작 4편은 꾸준히 비디오 대여점을 찾아 빌려보는 마니아들이 있을 정도다.

지난 194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그는 홍콩으로 건너가면서 무술을 배웠고 18세 때 미국 시애틀로 옮겨 워싱턴 주립대에서 철학을 전공하며 밤에는 여러가지 쿵후의 감점 만을 모아 새로운 무술을 개발했다. 절권도(截拳道)는 이렇게 탄생했다.

이후 71년 홍콩 글든베스트사와 계약한 뒤 촬영한 '당산대형'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일약 액션 스타로 떠올랐다.

영화 줄거리는 타이의 한 얼음 공장 노동자가 홀로 나쁜 무리들과 맞서 싸운다는 진부하고 유치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절권도를 가미한 뛰어난 액션, 근육질 몸은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이후 '맹룡과강', '정무문', '용정호부' 등 후속작을 통해 세계적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한국 관객들에게 이소룡 열풍은 1972년 소개된 '정무문'을 통해 시작됐다. 이소룡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피조음으로 불리는 고음의 기합소리에 열광하고 쌍절곤 습시와 절도있는 몸놀림 등을 따라하는 '이소룡 키드'들도 생겨났다.

죽은 지 30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도



액션 연기를 펼치고 있는 이소룡. 오른쪽은 성룡.

이소룡의 흔적을 담은 '말죽거리 잔혹사', '킬빌' 등의 영화가 그의 이미지를 재생산해 인기를 끌었다.

그는 1973년 7월20일 여배우 벤틀링페이와 맨션에서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벤틀링페이는 경찰에서 영화 '사망유희' 제작자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다 되도록 진통제를 먹은 리가 일어나지 않자 혼들어 깨웠으나 이미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갑작스런 그의 사망 원인을 두고 '뇌부종', '암살', '가슴통증 때문에 마셨던 진통제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에인 벤틀링 페이와 성관계 중 돌연사' 등 갖가지 설이 있다.

그의 아들 브랜던 리도 영화배우가 됐으나, 1993년 'The Crow' 영화 촬영 도중 실탄이 장착된 줄 모르고 연기하다 총기 사고로 죽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퀴즈

73. 최근 5·18 광주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또는 무대 예술 작품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27년 전 광주의 이름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가 있는가 하면 짙은 한 그릇으로 5·18이 일어났다는 기상천외한 상상에서 출발한 연극도 공연됐습니다. 또 황지우의 희곡을 토대로 한 대형 창작 뮤지컬도 내년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5·18을 소재로 한 작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다이하드 4 ②화려한 휴가 ③짬뽕 ④오월의 신부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18일(음 6월 5일 癸丑)

36년생 뒷일을 마무리 할 사람이 없다. 48년생 부하의 협조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니 고맙게 생각하라. 60년생 발걸음은 가벼우나 마무리가 시원치 않다. 72년생 항상 언행을 조심하라. 84년생 후배와 금전거래는 금물이다. 행운의 숫자: 14, 27

37년생 枯木回春이니 더욱 더 잘 가꾸어라. 49년생 희망의 새아침을 만나는 격이니 계획을 세워라. 61년생 새로운 문자와 뜻밖의 수입이 발생한다. 73년생 도와줄 사람이 못 본체해도 괴로워하지 마라. 85년생 하늘 한번 우러러 보라. 행운의 숫자: 17, 38

38년생 주변의 아픔들이 보인다. 50년생 순조로운 진행은 정직과 신뢰에 있다. 62년생 부자는 미루고 신사업의 내실을 기하면 심의苦痛은 없으리라. 74년생 여성을 만날 땐 꼭 결혼한 선배와 상담하라. 행운의 숫자: 05, 25

39년생 부부간의 등산으로 應緣合을 사도해 보라. 51년생 처나 남편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63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니 등사하며 살라. 75년생 옛 것으로 말발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행운의 숫자: 07, 36

40년생 부부간의 사랑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 52년생 부부간의 불화는 쌍방과실이니 사랑으로 해결하라. 64년생 모든 일이 길사로 연결되며 이사 할 수도 있다. 76년생 전진하면 무리없이 결과가 좋다. 행운의 숫자: 20, 41

41년생 沈潜理學을 아래 사람에게 내 것 준다는 마음으로 극복하라. 53년생 마지막 고생이 남아 있다. 65년생 뿔 뿔 뿔한 계획이 계속 이루어진다. 77년생 옛 문서 잡고 눈물이 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21, 25

42년생 남자는 처음 여자는 시가 꼭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라. 54년생 자녀로 불륜은 있으나 어렵지는 않다. 66년생 문서는 꼼꼼히 살펴서 확인해야 하리라. 78년생 보증을 절대금물이고 부부간에 대화를 하라. 행운의 숫자: 12, 41

43년생 심기가 개운치 않으니 운동을 해라. 55년생 부부의 일정이 예상되니 서로 사랑하라. 67년생 유혹 속에 虛聲假意 한탄하라. 79년생 근전간의 말발이 될 수도 있으니 자신을 잘 살펴야 할 때. 행운의 숫자: 08, 30

44년생 부부 및 주변에서 소문이 소문이 일어날 수도 있다. 56년생 모든 일이 즐겁게 시작 된다. 68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하라. 80년생 육십내지 말고 차분하게 모든 것을 살피워주로 정리하라. 행운의 숫자: 09,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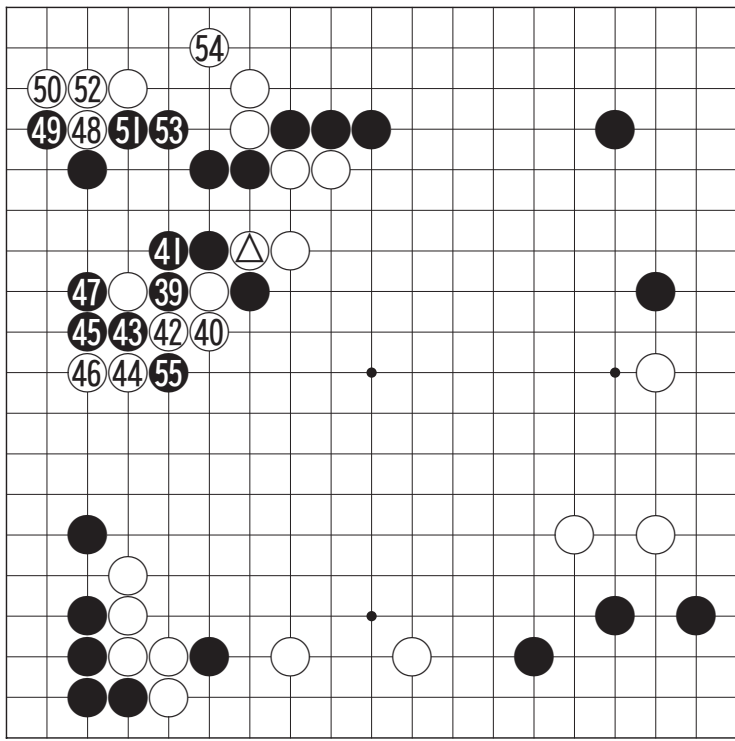
45년생 직업의 沈潛과 재물의 불연이 있을 수 있다. 57년생 지금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때. 69년생 안도의 숨을 돌리니 再充精하라. 81년생 다름은 없지만 득도 없다. 행운의 숫자: 10, 40

46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일도 있는 것은 아니다. 58년생 평범한 하루이니 奮發는 있다. 70년생 시간을 내어 주변을 살펴보라. 82년생 직장에 고민이 생기니 현명하게 처신해야. 행운의 숫자: 20, 43

47년생 막힌 곳이 어디인지 살펴봐야 한다. 59년생 할 일이 많으니 건강을 점검 해보라. 71년생 길사가 계속 될 것이니 손아래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라. 83년생 자기개발에 계획을 세우고 조응하 추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11, 27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4회전

흑의 득무대 3보(39~55)

白 유병수 5단 (포스코) 흑 유흥주 5단 (KT전남본부 A)

유병수 5단이 강경하게 백으로 끊어 온 장면이다. 이렇게 끊겨서는 살더라도 외곽의 백이 두터워져 흑이 곤란해 보이는 장면이다. 그런데 유흥주 5단은 여기에서 가장 실전적이 고 알기 쉬운 수로 위기를 쉽게 타개한다.

흑 39로 물고 41에 있다. 그리고 나서 43으로 끊어간 수가 실전적인 임기응변이었다. 보통은 46까지 막혀 속수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금은 흑으로 백의 세력에 머리를 내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쪽이 백의 세력이 생겨도 큰 위협이 되지않는 것이다.

백 48은 살리도 클뿐만 아니라 선수성. 그런데 유흥주 5단은 다시 49로 찢고 53까지를 선수하는 재치 있는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다. 그런 다음 귀중한 선수를 뽑아 흑 55로 백이 열심히 쌓아놓은 세력을 뿌리채 끊어 세력을 곧바로 몰아넣는 기민함을 보여주고 있다.

바둑을 두다보면 수가 잘 보이는 때와 반대로 잘 안풀리는 때가 있다. 오늘은 유흥주 5단의 컨디션이 최상인지 강자인 유병수 5단을 만나 초반부터 득무대처럼 관을 휘젓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강동윤 전자랜드배 우승

강동윤 5단 최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결승 3번기 최후국에서 이창호 9단을 237수 끝에 흑 불계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강 5단은 이 대국에서 막판 패색이 짙었으나 초읽기에 몰린 이창호 9단이 자중수를 두는 바람에 손쉽게 승리를 챙겼다. 강 5단은 프로 무대 데뷔 이래 본격기전에서 처음으로 우승하는 기쁨을 누렸다.

강 5단은 최근 한국바둑리그에서 이창호 9단을 꺾은 데 이어 전자랜드배 최후국도 승리하는 등 2연승을 거뒀다. 우승 상금은 4천500만원(준우승 1천8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굿모닝 잉글리쉬 <950>

No, not at all.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 A: I'll go and get the price list. Would you mind waiting a moment?
B: No, not at all.
A: Maybe you'd like to look at some of our products in the next room while I go and get it.
B: Yes, I'll take a look at them, thank you.

- A: 가서 가격표를 가져오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겠습니까?
B: 예, 그렇게 하세요.
A: 어찌면 손님께서는 저희 제품을 좀 보고 싶어하실 것 같은데, 열람에 있는데요. 가서 가져올게요.
B: 그렇게 하세요, 한번 보고 싶군요. 고마워요.

- * Do you mind ~ : ~괜찮겠습니까?
* 담배 피워도 되겠습니까? = Do you mind if I smoke?
* 싫은데요. = Yes, I do mind.
* 괜찮으시다면, 저희는 여기서 쉬어도 될 것 같군요. = If you'd like to, we can rest her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950>

シーズンオフに買(か)うと安(やす)いですよ。 비수기에 사면 싸거든요

- A: 梅雨(つゆ)が終(お)わったら、もっと暑(あつ)くなるそうですね。
B: そうですね。私は去年(きょねん)の冬(ふゆ)にクラを買(か)っておきました。
A: 氣(き)が早(はや)いですね。
B: 冷暖房器具(れいだんぼうぐ)は、シーズンオフに買(か)うと安(やす)いですよ。

- A: 장마가 끝나면 더 더워진다고 하네요.
B: 그러게요, 저는 작년 겨울에 에어컨을 사왔어요.
A: 성미가 급하시네요.
B: 냉난방기구는 비수기에 사면 싸거든요.

- 梅雨(つゆ): 장마(ばい우)라고 읽기도 한다)
クラ: 에어컨
暖房機(だんぼうき): 난방기
氣(き)が早(はや)い: 성질이 급하다, 성미가 급하다
シーズンオフ: 비수기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 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140>

我要去书店 저는 서점에 가려고 합니다

- A: 您去哪儿?
Nin qí nǎr?
넌 어디?
E: 我要去书店。
Wǒ yào qù shūdiǎn.
원 하고 책 사러 갔.
A: 您能帮我买一本地图册吗?
Nin neng bang wo mai yi ben ditu ce ma?
넌 도와 줘서 지도 한 권 사줄래?
B: 你要什么样的地图册?
Ni yào shénme yàng de ditu ce?
넌 어떤 종류의 지도책을 사려고 하는데?
A: 네 어디 가니?
E: !!! 서점에 가려고 해.
A: 지도책을 한 권 사려고 하는데 내가 도와 줄 수 있데?
E: 네는 어떤 종류의 지도책을 사려고 하는데?

- 书店 [shūdiǎn] 서점
地图册 [dìtú cè] 지도책

<호남대학교 공자어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567>

博士(박사) 넓은 박, 선비 사

박사(博士)는 글자 그대로 하면 '널리 알고 있는 선비'라는 뜻이지만, 옛날에는 전문 학자 및 기술자에게 주던 벼슬 이름이다. 요즘은 한 분야(分野)에 정통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學位)의 명칭으로 사용한다.

박사라는 관직이 처음 설치된 것은 중국 진(秦)나라 때이다. 진시황은 많은 박사를 두어 국정(國政)의 고문으로 삼았다. 그는 통일한지 8년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의 위업을 과시하고자 근대한 잔치를 벌였다. 이 잔치에 무려 70여명의 박사가 참석하여 그의 공덕(功德)을 기리고 만수무강을 빌었으나, 유학(儒學)을 익힌 순우열(淳于越)이라는 박사가 진나라의 정치제도를 비판하였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지식인을 탄압하는 분서갱유(焚書坑儒)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 진나라는 멸망에 이르러 되었다. 이처럼 전문지식인인 박사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배운 지식을 기탄없이 드러내어 화를 당한 경우가 수없이 많다. 하여 생긴 말이 식자우열(識字憂患)이라는 말도 있다.

현대에는 '연예박사' '여객박사' 'PC박사'처럼 어떤 분야를 나타내는 말 뒤에 '박사'를 붙여서 그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일컫는 때도 사용하지만, '가짜박사'라는 말도 심심찮게 메스껍게 장식한다.

<한여원(韓孝嫻)>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